



3면

"3월 내 선거법 개정·개헌 특위 출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음 12월 21일) 제318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중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학생중심 미래교육, 향해 시작”

서거석 교육감, 2023년 전북교육정책 발표

▶ 관련기사 16면

수업혁신·기초학력 책임 등 10대 핵심과제 제시

“실력·인성 키우는 전북교육으로 희망 드릴 터”

“전북지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는 약 6만500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올해 4356,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뜻을 높이 올리고 합찬 향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을 열었다.

그러면서 “소중한 예산, 학생들을 위해 충실하게 쓰겠다”면서, 미래교육, 수업혁신, 기초학력 등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서 교육감은 먼저 미래교육에 대해 언급하며, “에듀테크 교실로 대전환한다”면서 “올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전자 질관도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듀테크 교실을 구축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라면서 “이를 위해 올해 1만 5000명의 교사 연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래를 바꾸는 힘은 수업혁신에 있고, 수업혁신은 수업 공개로부터 시작된다”면서 “교사들끼리 수업을 공개하고 서로 참여하면서 개선점을 찾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수업과 연구에 집중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육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2023년을 기초학력 책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기초학력만큼은 반드시 책임자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초등학교 2학년 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신뢰도 있는 평가도구로 진단검사를 전면 실시해

기초학력 부진을 찾아내 맞춤형 처방을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기초학력 협력교사 100명, 학습지원 튜터 300명 등을 투입해 초등학교 단계서 기초학력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인사제도 개편 △행정 혁신 △작은학교 살리기 △교권과 학생인권 조화 △인문·예술·체육 교육 강화 △학생 해외연수 본격화 △미래학교 운영 등이 있다.

인사제도의 경우, 전북교육청은 농어촌학교 근무 가산점을 축소하고, 도시 대규모학교 가산점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마련중이다. 5급 사무관은 평소의 근무평가만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행정도 과감히 혁신해 절차를 위한 절차는 폐지하고 형식적인 위원회는 정비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도 교육과정 중심이 되도록 교육지원청의 학교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작은학교 살리기에 공을 들인다. 농촌유학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교장공모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육감은 “위기의 농산어촌, 원도심 작은학교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학교를 살리고 바꾸려는 뚜렷한 비전과 의지를 가진 교장이 필요하다”면서 “농산어촌 작은학교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교생이 10명 미만인 아주 작은학교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교육 주체들의 동의를 얻어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가칭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전북교육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청년 인턴사업 운영

도내 청년 공공기관·기업 실무체험 지원 확대
전북도, 광주노동청 전주지청 등과 협약 체결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도내 청년에게 공공기관·기업에서 실무체험을 지원하는 ‘청년인턴 사업’을 고용부와 협업해 확대 추진한다.

11일 전북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세스트인과 ‘청년 인턴사업 확대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일 경험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본격 확대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200여 명의 대학생 대상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직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직무인턴 사업’

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경기둔화로 신입 채용을 축소하고 경력직 수시 채용 고용부와 협업해 확대 추진한다.

11일 전북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세스트인과 ‘청년 인턴사업 확대 협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일 경험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본격 확대 추진을 위해 추가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전북도는 200여 명의 대학생 대상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직무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생 직무인턴 사업’

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경기둔화로 신입 채용을 축소하고 경력직 수시 채용 고용부와 협업해 확대 추진한다.

지원금, 일대일 전담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을 제공한다.

도에서 추진하는 7주형 사업은 대학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이뤄지며, 고용부에서 추진하는 3개월형은 연중 상시 인턴체제를 추진한다. 현재 7주형은 겨울방학을 맞아 2월 17일까지 37개 공공기관에서 153명이 직무인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해 도는 고용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청년 762명에게 직무인턴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870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식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직무인턴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 직무를 탐색해볼 수 있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 경험 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정은성 기자

시민 愛 의회 함께해요, 익산!

“2023 계묘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의 새해를 응원합니다!

익산시의회의 의원 일동